

류현진·안우진·김민선 등 토끼띠 스포츠 스타들 주목



류현진



안우진



김민선

야구 류현진·양의지, 축구 정우영·송민규, 빙상 김민선, 골프 최혜진 등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토끼띠 스포츠 스타들이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다. 팔꿈치 수술 후 회복 중인 1987년생 메이저리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은 7월 복귀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프로야구 프리에이전트(FA) 몸값 역사를 다시 쓴 양의지(두산 베어스)는 자신을 한국 최고의 포수로 키워준 '진정팀'에서 새 출발에 임한다. 야구 정우영(LG 트윈스)과 축구 정우영(SC 프라이부르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최혜진(롯데) 등 1999년생 토끼띠 선수들은 전성기를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다.

1987년생 스포츠 스타를 대표하는 양의지에게 2023시즌은 새 출발의 해다. 2006 신인드래프트에서 두산 지명을 받고 프로에 뛰어들던 양의지는 리그 최고 자리에 올랐다. 오래 몸담았던 두산을 떠나 2019시즌을 앞두고는 NC 다이노스와 4년 125억원의 대형 계약을 맺고 이적했다. 4년이 지난 뒤에도 양의지의 기량은 녹슬지 않았다. 여전히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양의지에 두산은 4+2년 152억원의 KBO리그 사상 최고액 계약을 안기며 다시 손을 잡았다. '왕조 재건'이라는 임무를 받아들이고 두산으로 복귀한 양의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23시즌을 준비한다. 류현진은 재기를 목표로 달린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로 시즌을 일찍 마무리한 류현진은 재활에 한창이다. 예년보다 일찍 국내서 보내는 겨울 휴가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미국으로 돌아갔다. 복귀 목표는 올해 7월로 잡았다. 토론토와 4년 FA 계약 마지막 시즌을 맞은 만큼 이번 시즌 부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안우진(키움 히어로즈)에게 2022시즌은 프로 데뷔 후 최고의 시기였다. 평균자책점(2.11) 1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타이틀을

나라 1999년생으로 나이도 같다. 지난해 생애 첫 월드컵에 오른 정우영은 이제 국가대표를 목표로 더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경험한 정우영과 송민규(전북)는 한 단계 도약을 꿈꾼다. 막 전성기에 진입할 나이로 올해 더욱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형들에게 많이 의지했지만, 이제는 대표팀에서도 입지를 다져야 한다. 스피드 스케이팅 김민선(의정부 시청)도 2023시즌이 기대되는 1999년생 토끼띠 스타다. 김민선은 이번 시즌 월드컵 1차 대회를 시작으로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 새로운 빙상 여제로 우뚝 섰다. 세계랭킹 1위까지 올라선 김민선은 내친김에 은퇴한 이상화가 가지고 있는 여자 500m 세계 기록 36초36에도 도전한다. 최혜진은 본격적인 LPGA 데뷔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꾸준한 성적을 냈지만 우승에는 닿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쳤던 신인상 경쟁에서도 웃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LPGA 무대에 적응을 모두 마친 만큼 올해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월드컵 스타' 조규성...2023년 유럽 진출 꿈 이룰까

카타르월드컵서 '멀티골'로 벵거스타 1년 만 몸값 4배 이상 훌쩍 뛰어올라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300만 명 육박 소속팀 전북과 '이적 시기' 의견 조율

카타르월드컵에서 '깜짝 스타'가 된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25·전북)이 새해 유럽 진출 꿈을 이룰까. 조규성에게 2022년은 잊지 못할 한 해였다. 생애 첫 K리그1 득점왕(17골)에 오른 뒤 카타르월드컵 본선에 참가해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애초 황의조(울림피아코스)의 백업으로 필거란 역할을 맡았던 조규성은 후반 교체로 뛰었던 조규성은 가나전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16강전까지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하며 대표팀 최전방을 책임졌다. 월드컵을 통해 몸값도 폭등했다. 유럽축구 이적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조규성의 몸값은 지난해 12월 60만 유로에서 1년 만에 250만 유로까지 상승했다. 한국 돈으로 34억원 정도다. 또 경기력에 잘 생긴 외모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월드컵 이전에 2만여 명이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워는 300만 명에 육박했다. 신데렐라와 같은 스토리다. 2019년 K리그 2(2부리그) FC안양에서 프로로 데뷔한 조규성은 한 시즌 만에 K리그1 최강팀 전북 유니폼을 입었다. 입단 초기 어려움을 겪은 그는 1년 만에 김천 상무에 입대해 반전 드라마를 썼다. 상대 수비수와의 몸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근육량을 늘렸고, 동시에 결정력과 스피드까지 보강했다. 꾸준한 노력은 생애 첫 월드컵 출전과 득점이란 결과를 만들어냈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해외 진출로 향한다. 조규성은 카타르월드컵을 마친 뒤 귀국 인



터뷰에서 "선수라면 당연히 세계적 무대로 나가 세계적 선수들과 부딪혀 보는 게 꿈"이라며 해외 이적 의사를 보였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등 세계적인 강팀들을 상대로 얻은 자신감도 한몫을 했다.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규성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공중볼 경험에서 1위에 올랐다. 무려 18차례나 공중볼 경험에서 승리했다. 조규성은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0-2로 끌려가던 후반에 헤딩으로만 두 골을 터뜨렸다. 유럽 클럽들도 한국의 차세대 골잡이 조규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여러 루머가 나온 가운데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을 비롯해 페네르바체(튀르키예), 도르트문트(독일), 스타드 렌(프랑스) 등이 조규성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규성이 월드컵에서 가능성을 보인 만큼, 선택의 폭은 매우 넓어진 상태다. 다만 관건은 시기다. 올해 9월 전역한 조규성은 병역으로 인한 걸림돌도 없다. 하지만 소

속팀 전북과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다. 전북 입장에서선 만족할만한 조건의 제안이 와야 조규성을 보낼 수 있다. 축구계에 따르면, 조규성과 전북 구단 사이의 의견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성은 시장 가치가 상승한 올겨울 유럽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은 내년 여름 이적시장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겨울에 유럽을 가던 현지 적응은 물론 기존 경쟁 구도를 깨야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조규성의 유럽행은 선수와 구단이 만족할만한 실질적인 오퍼가 오느냐에 달렸다. 여기에 전북의 선수 영입과 이적을 담당하는 박지성 디렉터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그는 최근 조규성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시점과 이적할 팀이 중요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프로축구 광주FC, 브라질 공격수 토마스 영입

침투·연계·결정력 장점 스트라이커...브라질·그리스 등서 활약

프로축구 광주FC가 브라질 출신 공격수 토마스(29)를 영입했다고 1일 전했다. 180cm 76kg의 탄탄한 신체 조건을 지닌 토마스는 동료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와 공간 침투, 마무리가 장점인 최전방 공격수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에 능하며, 좌우 측면과 공격력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2011년 CR플라멩구(브라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토마스는 데뷔 시즌 팀의 주 리그 우승에 기여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ACN시에나(이탈리아 세리에B), 시애틀 사운더스(미국 MLS) 등 해외 리그를 경험한 뒤 브라질 세리에B의 조인 빌레EC, 산타 크루스FC, 룬드리나와 아트로미토스(그리스 1부) 등에서 뛰었다.



토마스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광주는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조직력이 강점이라고 느꼈다. 이 점이 나와 잘 맞는다"며 "하루 빨리 나의 특장으로 환호하는 팬들의 합성을 듣고 싶다. 팀의 승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전성기 지난 '슈퍼스타' 호날두...유럽 떠나 아시아로

민헨·첼시·나폴리 등 이적 실패하자 거액에 중동행

전성기가 지난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가 유럽을 떠나 아시아 무대로 향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나스르와 2025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매년 약 2700여만원을 받는 엄청난 조건으로 중동 클럽과 손을 잡았다. 2021~2022시즌 친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로 돌아온 호날두는 복귀 첫 해 리그에서 18골을 터트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지만 소속팀 맨유가 2022~2023시즌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자 지난여름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있는 팀으로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호날두는 바이에른 뮌헨(독일), 첼시(잉글랜드), 나폴리(이탈리아) 등 유럽 빅클럽들과 연결됐으나, 실질적으로 협상이 오가지 않았다. 뮌헨은 호날두와 철학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첼시는 새 구단주인 토드 보일리가 호날두 영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당시 사령탑이던 토마스 투헬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나폴리는 호날두의 몸값을 감당하기 벅찼다. 맨유가 호날두의 주급을 일부 감당하는 것으로 협상이 오갔으나,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호날두의 고액 연봉은 이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는 맨유에서 주급 50



만 파운드(약 7억8000만원)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 가치가 크게 하락한 호날두의 주급을 맞춰줄 팀은 사실상 없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의 부진도 한몫을 했다. 포르투갈 대표로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대회 전 맨유의 불화설로 시끄러웠고 대표팀 동료들과도 사이가 틀어졌다. 또 조별리그 최종전인 한국과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교체된 뒤 벤치로 밀려났다. 결국 유럽 구단들의 협상에 실패한 호날두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알나스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호날두는 지난달 유명 언론인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난 돈에 관심이 없다"며 "최상위 레벨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선수 시절 막판에 미국,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순천시 체육인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순천시체육회(회장 이상대)는 지난해 12월 27일 팔마국민체육센터에서 종목단체 관계자, 지도자, 선수 500여 명과 함께 노관규 순천시장, 소병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인의 송년 행사를 치렀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대 체육회장은 5월 순천시에서 21년 만에 열린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출전해 16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

고 10월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4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성과 보고를 했다. 특히, 국제대회인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을 치렀고,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를 열어 3만 7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유치하는 등 평생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계기였다고 자평했다. 순천시체육회 이상대 회장은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순천시체육인들이 온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각종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